

흥기든 强盜 10年 이상 求刑

88
8.3.18

人命 피해 안줬어도 嚴罰

피해자自救행위 警官직무중事故는 최대善處

전북은 국가의 전수사력을 동원한 강도범죄를 뿌리뽑을 때까지 무기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흥기든은 또 『강도살상강도강도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흉기를 소지한 단속 강도에게도 10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하고 있다. 『강도범죄』에 대한 강도죄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형로 두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강도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은 18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강도범죄추진본부 회의에서 『인민』을 살상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질인 강도범죄를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빠졌었다. 『선자와』를 비롯하여 전주해 강도범죄를 더욱 더 심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전수사력을 동원해 무기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흥기든은 또 『강도살상강도강도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흉기를 소지한 단속 강도에게도 10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하고 있다. 『강도범죄』에 대한 강도죄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형로 두기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강도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은 18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강도범죄추진본부 회의에서 『인민』을 살상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질인 강도범죄를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에 빠졌었다. 『선자와』를 비롯하여 전주해 강도범죄를 더욱 더 심을 부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 결과에 따르면 3 것으로 나타났다. 명상 때를 지어 법원에서는 전가 전정 중, 강도범죄가 전정화하고 있고 이 기간 중 소년강도범죄가 전정화되고 있다. 40%를 차지, 강도범죄의 40%를 차지, 강도범죄의 전정화되고 있다. 40%를 차지, 강도범죄의 전정화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성고문 사건 초기에 “가슴 몇번 툭툭 쳤다”는 문귀동씨의 거짓말이 정설로 받아들여져 권인숙씨를 “성까지도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는” 악질 분자로 취급했던 당국의 태도를 생각나게 만든다. 이 두 사건 역시 강간 피해자를 “무고죄” 또 “증거불충분”이란 미명으로 거짓말장어로 만들고 있고, 가해자가 공권력의 조직원이기 때문에 보호된다는 심증을 버릴 수

88.3.18

도둑 殺害 商人 不

檢察 興기로 찌른기

검찰은 17일 자신의 가게 시했다. 에서 물건을 훔치면 10대 소년들 소고책으로 찌른 솜씨 검사는 주인尹씨가 점포를 계한 서울龍山구普光동 새마을유치원인尹鍾九씨(43)를 찌른 채로 찌른 행위는 불사죄 불구속사하라고 경찰에 지인 일반시민이라면 충격을

연쇄殺人 강도 死刑선

서울地法 “잔인한 犯行 正當참

작년 10월 하룻밤새 女大生 女中生 3살해

서울지법(부지원 현사합 연쇄살해하고 강도죄를 해은 의부재판장康孝奉부장판사) 형으로 구속기소된全龍호의 는 18일 서울城東구廣社동과 고인(35 부지)에 대한 선고 江東구岩寺동, 千戶洞에서 공판에서 송고고인에게 사형 영대생1명과 장영대생1명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순한 흥과 동기에 서 2차례의 살인과 5차례 의 강도행위를 해온것은 정 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살인자의 영지가 없다



김효선

최근 들어 민생치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는 치안당국의 노력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직업소 개소를 단속하고, 인신매매범을 가정파괴범과 같이 취급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스려 나가겠다는 발표는 시도 때도 없는 성폭력의 공포에 잔뜩 긴장해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믿음직스

경찰의 성폭행과 피해자

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문제로 떠오른, 경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두 가지가 이 순진한 믿음 앞에서 빨간 신호등을 치켜 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찰에 의한 강간 사건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이 두 사건은 해결방식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경찰관에게 강간

당한 대구의 한 여성은 무고죄와 간통죄로 구속되었고, 전남 고흥군의 낙도인 침도의 많은 강간당한 여성들이 파견경찰 한 명을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고 말았다.

강간사건의 가해자는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 여성은 구속되거나 고발이 거절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들의 가해자 경찰들이 대다수 공권력 종사자와는 아주 다른 일탈자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치안당국의 눈이 내부로 향해야 할 것이다. 엄중한 자체 수사를 통해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내부요인을 고쳐나갈 때 치안당국에 대한 여성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유기고가〉